



상월결사 순례, 21세기형 구법행

한국불교 순례사와 상월결사 순례 의미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순례(巡禮)는 고금과 종교를 막론하고 지속된 행위다. 길 위에서 깨달음을 얻고, 길 위에서 전법을 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행위로 크게 보면 순례에 가깝다.

하지만 종교적 순례가 정확하게 시작되는 시점은 교조가 부재하면서부터다. 교조가 살아있을 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교조를 친견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교조가 부재하게 되면 교단 구성원들은 교조의 가르침을 회상하고 신앙심을 고양시킬 행위를 고민하게 된다. 그 고민의 산물이 '성지순례'의 형태로 나타났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태어난 룬비니, 정각을 이룬 부다가야, 초전법륜지 사르나트, 열반처 쿠시나가라를 4대 성지로 삼고 있다. 여기에다 스라바스티, 상카사, 라즈기르, 바이슈리 등을 더해 8대 성지로 꼽고 이곳들을 기리고 있다. <대반열반경>에는 부처님 4대 성지에 대한 순례를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하며, 어떤 공덕을 쌓을 수 있는지가 설명되어 있다.

“아난다여,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네 장소가 있다. 첫째, 여기에서 여래가 태어나셨다. 둘째, 여기에서 여래가 위없는 정등각을 깨달으셨다. 셋째, 여기에서 여래가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 넷째, 여기에서 여래가 무여열반의 요소

로 열반하셨다. 아난다여,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네 장소이다. 아난다여, 믿음을 가진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청신사들과 청신녀들은 이 네 곳을 방문할 것이다. 아난다여, 누구든 이러한 성지순례를 떠나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이들은 모두 몸이 무너지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고영섭 교수는 최근 <문·사·철>에 발표한 논문에서 “네 곳의 성지 순례는 여래가 태어난 곳, 정등각을 깨친 곳,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리신 곳, 무여열반의 요소로 열반하신 곳”이라며 “해서 이곳은 여래의 탄생, 깨침, 전법륜, 입멸의 도정은 대승불교의 수행과 수행의 기본체계인 신해행증(信解行證)과 상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처님의 일생을 회상하며 기리는 순례뿐만 아니라 더 높은 선지식을 찾아 자신의 수행을 점검 받고, 법을 구하기 위한 구법행도 이뤄졌다.

대표적인 것인 실크로드를 통한 구법승들의 구법순례다. 오로지 법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구법승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를 길을 나섰다. 2~8세기 중국을 통해 인도로 간 구법승은 약 131명으로 집계된다. 이중 한국의 구법승은 11명이다.

이중 가장 유명한 구법승은 당나라의 현장 스님이다. 중국 고전 <서유기>의 삼장법사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현장 스님은 국외 여행을 금지한

부처님 걸으면서 곳곳에 전법 佛滅 뒤 성지화 이뤄지며 순례 '구법'순례, 불교 발전 견인해 근대 이후에는 관광과 결합돼 걸으며 신앙처 순례 '상월결사' 오롯이 순례의 기본에 충실해

국법을 어기고 629년 인도로 떠난다. 고창국과 천산산맥을 넘어 중인도 나란다 대학에 이르러 된다. 그는 5년을 머물면서 그토록 연구자 했던 <유가사지론>을 비롯한 유식의 교학을 배우게 된다. 또 각지에 구법과 불적 순례의 여행을 계속 해서 다수의 불전을 얻어서 귀로에 나섰고, 17년 만인 645년에 이번에는 환영을 받으면서 장안으로 돌아왔다. 현장 스님은 구법 여정을 통해 불사리 150개, 불상 8체, 경전 520권 657부를 중국에 전했다.

이처럼 목숨을 걸었던 구법승들의 구법 순례는 동아시아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자 단초가 됐다.

그렇다면 한국불교 내에서 성지순례는 어떻게 이뤄졌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원효, 의상 스님이 낙산사 관음성지 순례를 했다고 전해지는 등 한국불교 순례의 역사는 길다. 고려시대에는 금강산으로 기도 순례를 떠난 회정 스님이 송라암에서 관음기도를 드리다가 3년 기도 끝에 문수·보

현·관세음보살을 모두 친견했다는 기록이 있다. 태조 이성계의 경우 왕이 되기 전 전국 명산을 기도 순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근대 이후 교통이 발전하면서 현대의 성지순례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1970년대까지는 일반 서민들에게 자신의 일상 생활공간을 떠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과 숙박의 해결이라는 사회적 여건의 발달이 성지순례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국민 복지증진의 차원에서 관광이 지원되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까지도 일상을 떠나는 일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됐다.

교통의 발달이 신도들을 성지까지 데려다 줬다면 성지에서의 숙박의 해결은 신도들이 그만큼 쉽게 순례를 다닐 수 있게 해줬다. “사회 현실과 맞물리면서 성지가 된 사찰은 신앙과 관광을 겸하는 추세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효원)이다.”

사찰이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순례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서울 불광사가 성지순례 신도 수행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는 전국 사찰로 전해졌다. 2006년에는 서울 삼각산 도선사에서 108산사 순례기도회가 첫 시작을 알렸고 2015년 회향했다. 이들 모두 교통과 숙박이 용이해지면서, 순례에 '관광'의 요소가 결합된 것들이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국민국복과 한국불교 증흥을 위한 상월선원 만행결사 준비순례와 올해 10월 1일부터 18일까지 이뤄지는 삼보사찰 순례는 '길을 걸으며 수행하고 전법하는' 순례의 기본 가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존 순례 관광 프로

그램과는 차이가 있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은 지난해 발표한 '수행과 전법의 길로서 상월결사'를 통해 만행결사 준비순례가 부처님이 강조한 순례의 정신이 연결돼 있음을 강조했다.

자현 스님은 준비순례가 <유행경> 등 8종의 열반 문헌에서 그 기원이 있음을 강조하고 “현대사회에 들어와 걷기 문화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이는 중요한 포교 수단으로서 가능성을 내포한다”면서 “당나라의 현장 스님은 유식학의 수학파 천제도수의 성지를 참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상월결사의 대상이 인도이며, 하루 30km의 순례와 더불어 매일 같이 1~2시간의 교육 및 토론이 진행되는 구조는 진정한 구도의 길을 상기시킨다. 이는 21세기의 진정한 구법의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올해의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불교의 기본인 삼보에 대한 예경과 이를 통한 불교증흥의 발원이 담겨 의미를 더한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지난 8월 열린 기자회견서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발원한 것은 불발승 삼보의 존귀함을 다시 한 번 알리기 위함이었다”며 “특히 승보사찰 승광사를 출발지로 삼은 이유는 승보의 의미를 훼손치 않기 위함이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승보로 출가, 법보로 수행, 불보로 깨달음의 과정을 상징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반도 남부 서쪽에서 동쪽 끝까지 산과 산을 이어가는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의 천리순례를 통해 자기수행과 대중화합의 새 불교운동을 실천하겠다”는 순례단의 발원이 한국불교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미리보는 삼보사찰, 함께가는 순례사찰

護國聖地 표충사

표충사(表忠寺)는 밀양 재약산(載藥山)에 자리한 천년고찰로 신라 원효대사가 무열왕 원년(654년) 죽림사(竹林寺)를 창건하며 가람의 역사가 시작됐다.

흥덕왕 4년(829) 셋째 왕자가 몸살 병을 얻어 전국의 명산과 명의를 찾던 중 이곳의 약수를 먹고 병이 낫게 되자 탑을 세우고 약수 이름을 영정약수라 불렀고 이때 산 이름이 재약산(載藥山), 사찰 이름이 영정사(靈井寺)로 불렸다.

신라 때는 보우국사가, 고려 때는 해린국사가 표충사에 머물렀는데, 특히 일연 스님이 표충사에서 <삼국유사>를 탈고한 것이 유명하다.

표충사는 조선 현종 5년(1839) 영축산 백하암에 있던 사명대사의 사당을 모시면서 크게 중창됐다. 사명대사는 무안 출신으로 왜란 이후 영축산 자락으로 갔다. 사명대사를 모신 사당을 1839년 사명대사 8세손인 천원대사가 좀 더 넓고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고 터만 남은 영정사 자리로 이전하고 이름을 표충사로 변경했다.

사당을 모시다보니 다른 사찰과 달리 불교문화와 유교문화가 함께 섞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불교와

유교가 통합되어 있는 한국불교의 통불교 면모를 함께 볼 수 있다.

표충사는 일제 강점기 화마로 소실된 이후 다시 중창하는 과정에서 사당영역과 법당영역의 구역이 나뉘었는데 표충사의 사당에는 서산·사명·기허대사의 호국 삼승 영정이 모셔져 있으며, 사명대사 유물관도 있다. 사명대사 유물관에는 사명대사 유품 3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데, 선조가 사명대사에게 하사한 금관가사와 장삼, 금제 수저 패도를 비롯하여 대사가 평소 원불로 모셨다는 목조불상과 염주 등이다.

표충사에는 국보 75호인 청동함은항완이 보존돼 있으며, 이 항완은 아름다운 선과 섬세한 문양조각미에 은입사로 다듬어진 동양에서 하나 뿐인 국보다. 또 보물 제467호 삼층석가여래 진신사리탑은 영정사를 창건한 황면 선사가 인도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와서 사리를 봉안하고 세웠다는 탑이다. 삼층석탑 왼편에는 효봉 스님이 주석하다 입적한 서레각이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자평 아래의 표충사